

블랑팡의 2016 년 발렌타인데이 사랑스러운 레이디버드 스페셜 에디션

블랑팡이 2001 년부터 해마다 공개해온 여성들을 위한 러브스토리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벌써 열여섯 번째로 선보여지는 2016 년의 발렌타인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르 브라쉬(*Le Brassus*)에 위치한 블랑팡 매뉴팩처에서 만들어진 레이디버드(*Ladybird*)의 스페셜 디자인이다.

레이디버드는 1956 년에 탄생한 블랑팡 우먼 컬렉션의 아이코닉 모델로서, 출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 오토매틱 워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아한 원형의 작은 사이즈가 특징으로 단번에 알아볼 있는 레이디버드 컬렉션은 일년 중 가장 로맨틱한 날을 기념하기에 완벽하다.

블랑팡은 브릴리언트 커팅 공정을 거쳐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자개 다이얼에 장식하여 특별한 날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자개 다이얼의 중앙에는 상감 기법이 사용된 하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하트의 윗부분은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반짝이며 시계의 전면을 완성한다.

레이디버드의 2016 년 발렌타인데이 에디션은 0.5 캐럿에 이르는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한 21.5mm 직경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 안에 담겨 있다. 시침과 분침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모델 안에는 지름 15.7mm 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6150 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무브먼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 중 하나로서 실리콘 소재의 밸런스 스프링이 새롭게 사용되었다.

시계의 6 시 방향에는 화살이 관통하는 하트 모양의 참(*charm*) 장식이 달려 있으며, 이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상징한다. 화이트골드 소재에 루비 소재의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화살의 참(*charm*) 장식은 탈착이 가능하다. 이 참(*charm*) 장식은 2015 년 바젤월드에서 공개된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렉션을 통해 처음 선보여진 것으로, 레이디버드 워치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12 시 방향, 또는 6 시 방향 중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다.

레이디버드 2016 년 발렌타인데이 에디션은 화이트 송아지가죽 스트랩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99 피스만 한정판으로 생산된다.